

## 타르트

페루에서 생산된 청포도를 너무 먹고 싶은 왕이 있었다. 왕은 어느 추운 겨울날 페루에서 적과 싸운 열하루 밤을 지내고, 승리의 소식을 신하에게서 들은 후 들판에서 구한 청포도를 한 입 베어 먹었던 추억이 있다. 깨물어 먹지 않고 베어 먹었다고 말하는 건 포도알 한가운데를 딱 깨물지 않고 한 알을 통째로 먹었기 때문이었다. 왕은 청포도의 맛을 아주 오랜 시간 기억하였다. 사실 기억한 것이 아니라 기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엇비슷한 일들에 빗금을 쳐가면서 ‘이 맛은 그 맛이 아니야’ ‘저 맛도 그때 그 맛이 아니야’ 라고 청포도만이 갖고 있던 특별한 맛을 머릿속에 수없이 되뇌어 보았다. 비슷한 청포도 사탕을 먹었을 때도 될 수 있으면 그 맛에서 가장 멀리 달아나고 싶었다. 난 참 가련한 운명을 가졌어, 라고 왕은 때때로 생각해보았다. 그때 들판에서 먹었던 청포도를 다시 맛볼 수 없는 운명이라니.

청포도의 맛을 찾고 싶었던 왕은 요리사를 불러 이렇게 외쳤다. “당신이 당시 내가 먹었던 청포도 요리를 만들 수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내 나라 영토의 절반을 떼어 주리다. 그렇지 않으면 자네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야.” 요리사는 이 엄포를 듣고도 전혀 몸을 부르르 떨지 않았다. 그는 「산딸기 오믈렛」이라는 글에서 이미 이러한 상황에 처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였다. “폐하, 저는 세상의 진귀한 온갖 말 요리, 돼지 요리, 오랑캐 요리, 쌍 요리, 원숭이골 요리 등 모든 것을 해봤나이다. 그러나 그때 폐하께서 맛보셨던 청포도의 맛을 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폐하는 그 날 몹시 마음이 몹시 지치셨고 또 지친 몸이었지만 이를 뒤집는 승리의 기쁨 속에 있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폐하는 청포도를 먹는 그 순간 동굴에 있었나이다.”

요리사는 청포도로 된, 왕의 입속에 굴러 들어간 그 맛의 요리를 만들 수 없는 다른 수백 가지의 이유를 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요리사는 동굴이라고 꼭 집어 말하였다. 그 맛은 검은 어둠에 휩싸인 동굴에서만 느낄 수 있던 것이라는 걸 상기시켜주었다. “혹 재료 때문에 제가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한 것이라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페루에서 먹은 청포도는 슈퍼마켓에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청과 고맙습니다, 생선 고맙습니다, 가격이 적힌 스티커와 함께 페루에서 폐하께서 드셨던 청포도는

이미 제 요리 창고에도 수없이 쌓여 있습니다. 문제는 폐하가 청포도를 드셨던 공간입니다. 앉았던 자리입니다. 밖 날씨와 차단되었던 그때, 폐하께서 동굴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셨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등장하였던 이끼 낀 포도 나무가 바깥의 숲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셨을 때, 그 맛이 황홀했던 건 이름 모를 동굴이었기 때문입니다. 동굴에서 접생하는 동물이라면 익숙한 일이었겠지요. 허나 왕께서는 그런 공간에서 성찬을 받아보신 적이 없겠지요. 하다못해 군사들이 음식을 먹는 배급 식판도 없었으니까요, 그릇도 없었고, 컵도 없었을 때 당신은 동굴에서 나오는 한 줄기 청량한 물을 가장 맛있게 삼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저와 그때 그 동굴로 가보심이 어떠신지요.”

왕은 요리사의 말이 이상한 설교 같다고 생각했다. 어떤 종교 집단에서 칠판을 두고 서로가 서로에게 교리를 설명해주는 그런 모습이 반대편의 나라에서는 흥한다고 알고 있었던 왕에게 요리사의 동굴에 관한 이야기는 어설피 종교의 즉흥적인 설교처럼 들렸다. 왕은 청포도를 먹었던 공간을 분명히 들판이라고 기억하였다. 1000년 전에 어떤 학자가 홍수를 막기 위해서 강줄기의 방향을 돌려 독을 쌓고 그 독을 따라 나무 몇 그루를 심은, 숲 근처의 들판이었다고 왕은 기억했다. 그러나 요리사는 왕이 청포도를 먹었던 공간을 동굴이라고 반복해 말하였다. “지금 어디에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대고 있느냐. 같은 요리를 할 여력과 재간이 없다고 그리 말할 것이지, 어찌하여 한사코 그대가 보지도 못한 동굴을 두려움 없이 이야기하는가.”

요리사는 한동안 침묵하며 눈을 아래로 내리깔았다. 그리고 잠시만 자기에게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그 잠시의 시간이 얼마큼인지 말하는 것을 까먹고는 문밖으로 줄행랑을 쳤다. 왕은 비탄에 잠겼으나 요리사가 두고 간 은빛 식판을 보고 다시 요리사가 돌아오리라 생각했기에 그를 따라잡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3시간이 그냥 가버렸다. 요리사는 물기가 촉촉한 청포도를 왕이 앉은 각목 의자 앞으로 대령하는 것이었다. “저는 늘 왕의 요리사로 일하며 호화로운 부역에서 요리를 해왔나이다. 그러나 전쟁이 일었던 저 지난 10년 간 왕을 따라 마구간과 옥상, 다락과 지하실에 숨어 수없이 많은 수프를 끓였습니다. 전쟁터에서 폐하의 고귀한 신하들은 맛을 불평하기에 여념이 없었지요. 저는 분명 제 외조부에게서 물려받은 법도에 따라 같은 양의 설탕을 넣고 수프를 저였으나 신하들은 궁정에서 먹었던 맛을 어서 내보라고 저를 혹사하고는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맛은 그대로인데 음식을 먹는 벼랑 끝의 자리가 이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맛을 볼 수 없는 자들은 맛이 아니라 자신의 엉덩이가 앉은 자리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가파른 절벽 앞에서도, 동굴에서도, 들판에서도 저는 같은 맛의 요리를 대령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앉고 서서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천차만별의 맛을 느끼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나이다. 제가 부역에서 하는 일이 요리라면 부역을 벗어난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나이다.”

거짓말이라. 왕은 요리사의 붉은 눈물방울을 보고 그렇지, 들판이든 동굴이든 내가 청포도를 먹었던 장소 따위야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조금은 탄복도 하였다. 왕은 이유를 알 수 없이 요리사의 설교에 마음을 한 박자씩 맞춰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엄마 품에 안겨 빨던 젖으로부터 처음 홀로 수지를 떼을 때의 기분을 떠올려보니 요리사의 말은 가당키나 한 것이냐고 화를 낼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내 그대의 말을 들으니, 들판에도 가보고 싶고, 동굴에도 가보고, 마구간에도 가보고 싶어졌구나. 청포도로 된 옛날 맛과 똑같은 요리를 먹고 싶었던 짐의 생각은 틀렸도다.”

왕은 옆에 있던 신하에게 내일 짐이 꼭 해야 할 일정이 무엇인가 물었다. 그리고 내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아니라면, 어떤 일 두셋 째은 제쳐두고 요리사가 말했던 동굴에 한 번 가보라고 생각했다. 요리사가 가져온 청포도 타르트에는 가지에서 떼어낸 청포도 알이 빼곡하게 박혀 있었다.

청포도에서는 천장 높은 이 방의 냄새가 난다.

